

##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 The Way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a Local Assembly and Communities

박기묵\*\*

Park, Kimuck

####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와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
- III.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지방 정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협력적 네트워크는 Provan & Kenis(2008)가 제시한 네트워크 유형 중 NAO 유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NAO유형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Provan & Kenis(2008)가 제시한 NAO유형의 상황요인변수인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요인변수들을 경상북도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성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둘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회의 각 상임 위원회와 그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들 간 네트워크 관리 조직(NAO)들을 개발하고 그 조직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괄 네트워크 관리 조직인 NAO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네트워크, 지방의회, NAO, 지역사회단체, 주민참여

\* 본 연구는 2012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14. 11. 18, 심사기간(1, 2차): 2014. 11. 18 ~ 2014. 12. 22, 게재확정일: 2014. 12. 22

This research presents the way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a local assembly and communities to re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 local autonomy. The cooperative network belongs to the NAO pattern that Provan & Kenis(2008) develop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of the NAO pattern, this paper reviewed the confidence, the participation number, the share of the end, the network capacity which are situation factor variables. The local assembly of Kyoungsangbukdo was illustrated to establish the network. This paper presents the way for establish the network by reviewing situation factor variables between the local assembly of Kyoungsangbukdo and local communities. The network is shaped as the NAOs related to 6 standing committees which controled by the NAO center.

□ Keywords: network, local assembly, participation of resident, NAO, local community

## I.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1년 큰 기대 속에서 부활되어 23년 동안 지속되어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당시 국민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큰 기대를 하였었다. 독재정권, 군사정권으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민주주의와 자유를 기대하였고, 각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평가들을 검토해 보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에 더 가까운 쪽의 지방자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는 한 국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적 법인격을 부여받아 자신의 지역 행정을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한 개념이다. 단체자치의 경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단체자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자치체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낮을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에 강시장-의회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위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전 오랫동안 중앙집권제를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건국 이후 끝없이 진행되어온 지역주의 정치 풍토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앙당의 정당공천제가 합세하여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그 후보의 정치 이념, 인물, 정책능력 등과는 상관없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되는 특이한 정치구도가 탄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정치를 말살시키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의 투표율 하락,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다(전연상·현근, 2011).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또 다른 무관심의 이유는 지방의회 입법권 및 권한의 제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 권한인 행정 감시권도 여러 면에서 제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열악한 사회적, 법적, 정치적 상황 하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무관심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지방 정치에의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이라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김순은, 2001; 송광태, 2005; 강인호외, 2004; 최병대, 2009).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주로 지방의원 보수 현실화, 의원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조건의 정비, 사무기구 기능강화, 법과 제도의 정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성화 방안들은 지방의원의 관점에서의 제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관점에서의 지방의회 활성화 논의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 분야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지역 정치에의 관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사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와 협력 네트워크의 필요성

### 1. 네트워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네트워크는 사람이나 어떤 사건들이 서로 연결된 관계망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서로간의 신뢰, 대화, 이해의 공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목적들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가장 최선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출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사회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 자체의 문제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는 공공기관이며, 지역사회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속성을 가진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호 협력이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직 간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환경문제에 일반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1973년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도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인간들 간의 관계는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Waserman & Fraust, 1994; Shergold, 2008; Guo, 2012; 정문기, 2009; 이

주현·박치성, 2010; 이민호외, 2014, 김승완, 2011).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상호간의 의존 없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Waserman & Fraust (1994)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나 조직은 홀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일단 어떤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권력, 지위, 정당성, 지식, 정보, 돈 등과 같은 자원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으며,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 관계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상하 계층제의 속성보다는 평면적인 구조를 가는 경향이 있다(Powell, 1990; Shergold, 2008; Provan & Kenis, 2008; Goldsmith & Eggers, 2004; 박치성, 2006; 이해원·우수명, 2005). 1990년대 들어서면서 민관 협력, 제3섹터,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의 자원을 민간 영역을 통해 공급받을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민간도 정부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적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경우 서로 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Jones et al, 1997; Agranoff & McGuire, 2003; Austin, 2000; Sirianni, 2009).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본질을 이해하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관련한 상당수의 연구들이 정부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배귀희·임승후, 2010; 강창현, 2001; 홍성만, 2002; 박형준·장현주, 2009; 김언아외, 2007).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준기·이민호, 2006; 김승완, 2011; 김준기·정복교, 2007; Brainard & McNutt, 2010). Brainard & McNutt(2010)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수평적 관계는 정보, 거래, 협력적 관계로 구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로의 관계를 관찰하면 협력적 네트워크의 수평적 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있으나 집행부와는 차원이 좀 다른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경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보, 거래, 협력적 관계를 모두 검토해 볼 때,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정부보다는 정책결정력이 약하며, 자원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정부보다는 시민사회가 소유한 자원에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보다는 지방의회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력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경우 그것의 관리만 잘 해 준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oldsmith & Eggers, 2004; Shergold, 2008; Provan & Kenis, 2008). Provan & Kenis (2008)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은 공유거버넌스와 리더조직거버넌스 네트워크, 그리고 NAO(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를 제시하고 있다. 공유거버넌스 네트워크는 모든 멤버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형이며, 리더조직거버넌스 네트워크는 하나의 리더조직에 의해 관리, 자원배분, 재원조달 등과 같은 핵심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며, NAO유형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관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인 NAO에 의해 관리되는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및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검토하였다. 네트워크 관리 및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체계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Inkpen & Tsang, 2005; Powell, 1990; Gulati, 1995; Meier & O'toole, 2001; Podolny, 1993; Ajuja, 2000). Gulati(1995)는 기업이 자원을 축적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Ajuja(2000)는 네트워크는 조직의 혁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Meier & O'toole(2001)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성과를 네트워크의 운영과 연관시켜 연구한 결과 둘 다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과가 올라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단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에서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검토할 때 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가장 가까운 연구들로는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 네트워크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연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

다음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에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다. 근래에 지방의회의 위기, 지방의회 무용론 등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는 광역 및 기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윤수찬, 2014; 김혜정, 2007; 이기우, 2005; 주용학, 2005; 송광태, 2005, 정영국, 2000).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연구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의 제약과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 지방의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윤수찬, 2014; 김혜정, 2007; 오환인, 2003; 송광태, 2005; 최창호, 2001). 그리고 정영국(2000)은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방의 정치는 없고, 중앙의 정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한수(1995)는 극심해지는 지역구도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중앙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지방의회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표를 의식한 정치성 위주의 활동, 도덕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자들도 있다(김순은, 2001; 최봉기, 2005).

이와 같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과 관련된 연구들도 최근에 발견된다(김혜정, 2007; 송건섭, 2013; 송광태, 2005). 김혜정(2007)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물적 자원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송광태(2005)도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주민의 지방 정치에의 참여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원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교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이야기 할 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는 누구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화된 집단, 시민단체, 각종 사회단체, 언론매체, 노조, 각종 연구소 등이 그 지역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혜정, 2007).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조직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조직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도덕성, 시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및 도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단체도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 부족, 자신들의 대표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이 가져야 할 구조적 특성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참여자들은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할 네트워크에서의 참여자들은 지방의원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된다. 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는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여자들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덕목은 참여자들 간 신뢰라 할 수 있다. 참여자들 간 신뢰가 높은 네트워크는 활기차게 움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 간 신뢰 또한 이 네트워크의 모형이 가지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들로서는 참여자들의 공동의 목적, 자원공유, 참여자들 간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경우 앞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관리만 잘 해 준다면 사회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거버넌스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모형의 구조적 특성으로 거버넌스의 속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지방의원과 지역사회단체들이 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단체들은 학계, 언론계, 교육계, 복지계, 환경을 포함한 각 시민단체, 금융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체육계 등이 있다. 이들의 수는 거의 10여개를 능가할 정도로 많다. 이런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 모형은 참여자의 수가 10여개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 중 네트워크의 리더가 이 모형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단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단체 또한 지방의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네트워크에는 특정한 리더가 없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관리 및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관리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에는 네트워크 관리의 특성도 포함된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도 관리를 잘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가 관리의 역량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된다면 네트워크의 성과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모형은 높은 역량이 있는 네트워크 관리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모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공동의 목적, 자원공유, 참여자들 간의 신뢰, 거버넌스 속성, 참여자 수는 10여개 정도의 참여하고, 리더가 없고, 네트워크 관리의 역량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그 모형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은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들을 요약하고 있다.

<표 1>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네트워크모형	내용	특성
공동의 목적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	높은공유
자원 공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자원 공유	높은공유
신뢰	네트워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상/중
참여자 속성	참여자들이 정부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의 여부	거버넌스
참여자 수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수	10개 내외
리더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단체가 있는지의 여부	없음
관리역량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정도	상

### Ⅲ.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에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의 협력 현황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유형들의 구조적 특성과 앞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다. 구조적 특성을 통해 유형들을 비교한 후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에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

된 유형과 관련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되는 구조적 특성들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1.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현황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현황 등을 광역자치단체로는 경상북도,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로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구미시 의회를 사례로 들어 제시한다. 지방의회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현황 논의는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지방의회의 현황은 <부록>을 통해 제시한다. 다음의 <표 2>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 까지 경상북도의회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현황이다.

<표 2> 경상북도의회의 지역사회와의 협력 현황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1	1139.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1140. 2013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본격 정책연구활동에	2
2013.02	1152. 경북도의회 2013 정책연구 워크숍 개최 1163. 경북도의회 직장협의회, "변화하기 위한 혁신"토론가져	2
2013.03	1170. 연구하는 의회, 전문성 강화로 경북도의회 변화의 바람 1174.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1175. 경북·대구시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1180.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1183. 경상북도의회↔ 영남대학교 상호협력 협약체결	5
2013.05	1188.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차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 1201. 동북아사무국 외국공무원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다 1210. 도의회사무처, 제9회「Mini 민의의 전당」개최	3
2013.06	1238.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 세미나 개최	1
2013.08	1252.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1257.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단과의 현장 간담회 개최	2
2013.09	1270. 중소기업 육성은 양질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부터 ... 1263.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민 삶의 현장을 찾다'	2
2013.10	1272. 경북도의회, 서호주의회와 우호협력의 폭 넓혀	1
2013.11	1285.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권 보장,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1
2013.12	1289. 경상북도의회 베스트공무원 선발	1
2014.01	1292. 도의회 의장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1294.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	2
2014.02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4.03	1307. 도의회 비회기 기간, 제12회『Mini 민의의 전당』개최	1
2014.04	1317. 장세헌 도의원(포항), 도 교육감에게 과밀학급 해소 강력 ...	1
2014.08	1348. 경북도의회,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 개최 1350. 의회사무처 직원, 추석 장보기 안동전통시장 방문	2
2014.09	1359.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함양!”, 경상북도의회가 앞장 선다 1364.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건설소방위원회 합동 연찬 ...	2
2014.10	1374. “서울~구미 버스노선 선산 정차 건의, 국토부 인가 이끌 ... 1378.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농연과 간담회 가져 1381.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항양덕초등학교 방문 1384. 경북도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1388. 경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위 원자력 안전관리 상황 점검해....	5
2014.11	1392. 경북도의회, “의회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1396. 경북도의회,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의 물꼬를 트 ... 1399.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 위한 전국 실무위원 토론회 개최	3

\*지역사회협력내역에서 나타나는 번호는 경상북도의회 보도자료의 번호임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경상북도의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지역사회 방문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의회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불리일으키기 위하여는 전담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 체계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머지 서울특별시, 대구 및 부산 광역시도 경상북도와 비슷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협력의 빈도가 광역시에 비해 많이 떨어졌으며, 그 협력 관계는 경상북도의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유형의 선택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이 분야에서는 이민호외(2014)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미국, 독일, 일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이들 여러 사례들 중에서 미국의 정부 간 관계 자문위원회,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협의의 장,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스코틀랜드의 지역계획 파트너십 위원회 등의 네트워크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유형은 중앙-지방 협의체 유형으로 Provan & Kenis(2008)가 제시한 네트워크 유형 중 NAO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NAO유형의 경우 그 유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성 등을 상황요인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신뢰변수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두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살펴볼 때 한 조직의 리더가 있어서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기 보다는 서로 간 보통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협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AO의 경우 참여하는 조직의 수도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의 공유도 서로 간 높은 정도의 목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 NAO유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분석기준들을 살펴보면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3>는 이 3가지 유형의 구조적 특성과 앞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표 3> 네트워크 유형들의 구조적 특성 비교

네트워크모형	네트워크별 구조적 특성			
	공유거버넌스	주도적거버넌스	NAO거버넌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공동의 목적	높은공유	낮은공유	높은공유	높은공유
자원 공유	높은공유	낮은공유	높은공유	높은공유
신뢰	상	하	중	상/중
참여자 속성	거버넌스	거버넌스	거버넌스	거버넌스
참여자 수	소(2~3개)	중(5~7개)	중/대	10개 내외(대)
리더	모든 참여조직	하나 또는 소수	NAO	없음
관리역량	하	중	상	상

앞의 <표3>에서의 유형비교를 통해 NAO유형과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 관련 이론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시적으로 구축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의 구조적 특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지 리더의 경우 NAO유형은 NAO자체가 되지만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리더가 없다. 이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조직이 세워지면 그 조직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리더로 NAO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NAO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모형으로 구축한다.

## 1.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논의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NAO유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언급하였었다. 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의 상황요인변수들인 신뢰, 참여조직의 수, 목표 공유, 네트워크 역량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1) 신뢰(Trust)

네트워크 이론에서 신뢰란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은 네트워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그 개념이나 구성이 뚜렷한 반면, 지역사회는 그 개념이나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를 한 특정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고 가정한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 언론계, 교육계, 연구소, 경제계, 법조계, 복지단체, 그 외 자발적 결사체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신뢰관계란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적 신뢰를 의미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신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보다는 개인적 성향이 중심적인 특성적 신뢰가 있는 반면, 관계형성의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 신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관계적 신뢰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범구(2003)는 신뢰를 상호간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서 인식, 탐색, 확장, 몰입, 소멸이라는 신뢰의 다섯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인식의 단계는 서로 간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고, 탐색은 서로 비용과 편익의 비교가 진행되는 단계로 양자 간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교환이 시작되고, 사회 정의 등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통해 자발적 협조 및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들은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규범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탐색의 단계를 거치면 확장의 단계에서는 관계를 통해 각각의 이익을 취하고, 상호의존성을 키우며, 관계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거나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음 단계는 몰입으로 관계의 지속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상호의존성이 절정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상호 관계에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신뢰의 관계는

소멸하게 되는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정범구(2003)의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는 서로 관계 속에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며, 공동의 목적을 찾고,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환 통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혁외(2010)는 양 당사자 간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정서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적·공식적 만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빈번한 정규적 만남의 기회는 서로의 신뢰를 향상시켜 네트워크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최종혁외(2010)는 또한 양 당사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단체의 평판, 보상, 성과 등이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단체들 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활발히 진행되면 네트워크 관리자는 활발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보상, 성과, 평판 등과 관련된 갈등 표출을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참여조직의 수(Number of Participants)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조직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방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지방의회를 상임위원회 별로 분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공동의 목표가 있는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의회라는 하나의 조직과 지역사회단체들 간 하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각 분야에서 많은 지역사회단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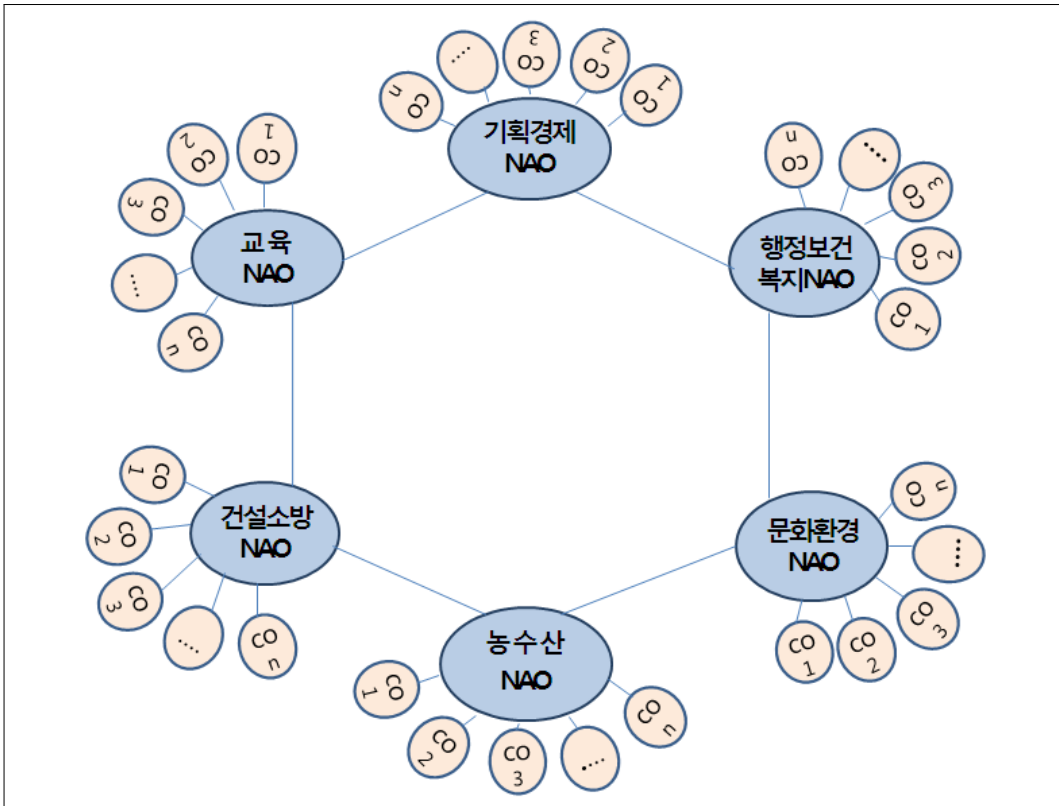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지방의회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를 사례로 선정한다. 경상북도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 6개의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총 6개의 NAO유형으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포함될 지역사회단체는 각 상임위원회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도정 기획·조정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운영 총괄, 도정 홍보환

동, 지역 단위 경제시책 개발·연구, 원활한 교통대책의 수립,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투자·통상진흥,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수출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는 지역의 행정과 재정관련 학회, 지역 언론계, 지역 경제계, 지역 연구소, 교통 및 예산감시 관련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는 “지방행정 지도와 보건, 복지, 여성,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종합대책 추진, 경북도립대학 그리고 민의수렴과 종합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는 지역의 지리 및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학회, 사회복지단체, 복지관협의회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지역 언론계, 지역 연구소, 여성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관광업무 종합기획 조정,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지원, 환경보존 및 산림자원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업무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역사회단체는 관광, 체육, 환경, 산림 관련 학회, 지역 예술계, 지역 환경단체, 생활체육관련 단체, 관광관련 단체, 지역 연구소, 시민단체, 지역 언론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촌 소득증대와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농·축산물 유통개선, 농·축산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에 대한 현안문제, 수산시설 확충 및 수산자원보호, 어업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단체들은 농·축산 및 수산 관련 학회, 농·축산 및 수산 관련 연구소, 농민단체, 축산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역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도청이전 추진, 도시계획 및 정비, 항구적 수방대책, 도로건설과 택지 조성, 주택공급,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들은 도시계획, 주택, 소방, 토목 관련 학회 및 연구소, 지역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과 발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로는 지역 교육계, 교육관련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지역 언론계, 지역 학원 협의회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

<그림 1>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NAO는 6개의 네트워크 관리 조직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회나 협의회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림1>에서 각 상임위원회 NAO와 선으로 연결된 “CO<sub>1</sub>, CP<sub>2</sub>, CO<sub>3</sub>, ..., CO<sub>n</sub>”는 “Community Organization”이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표현한 n개의 지역사회단체들을 의미한다. n의 숫자는 각 위원회 NAO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획경제NAO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행정과 재정관련 학회, 지역 언론계, 지역 경제계, 지역 연구소, 교통 및 예산감시 관련 시민단체 등 5개의 지역사회단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별 NAO는 위원회나 협의회라는 모습을 띠고 지역사회단체들과 서로 정기적으로 회의나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섯 개의 상임위원회별 NAO 사이의 연결선은 각 NAO가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NAO간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목표 공유(Goal Consensus)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 간 목표의 공유이다. 서로 간 목표의 공유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사실상,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 간 신뢰와 목표의 공유가 그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표 공유의 경우 공유의 수준이 높으면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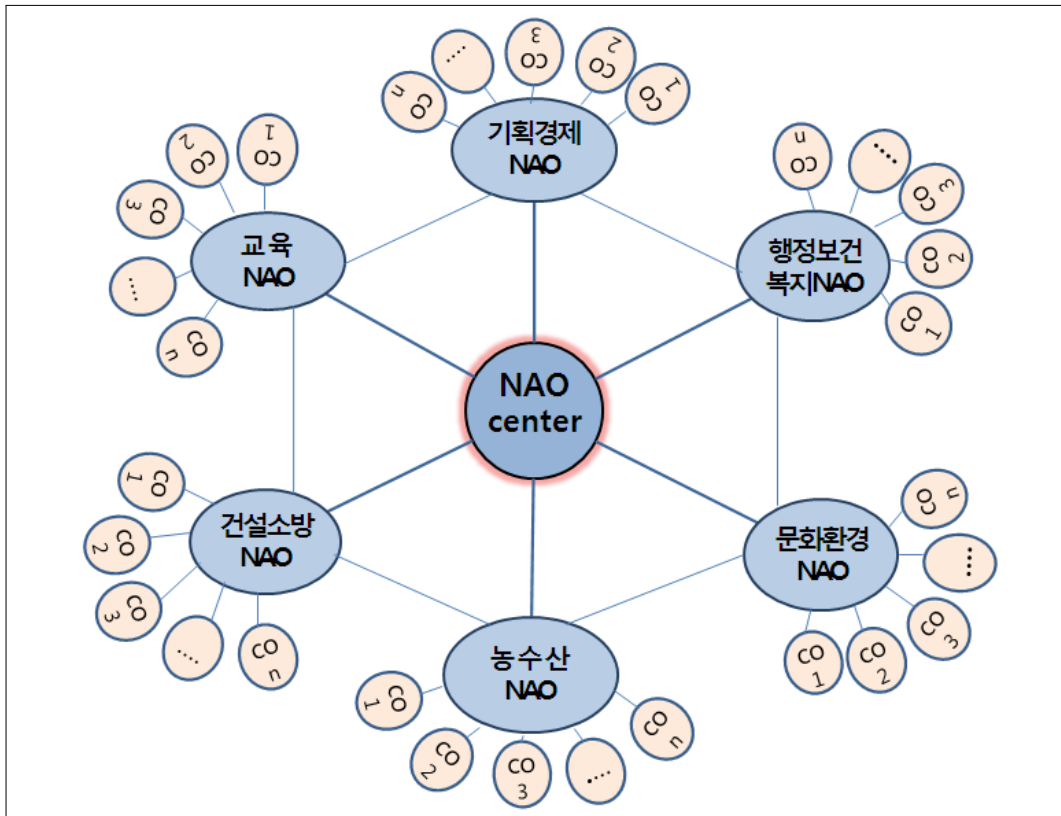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6개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6개의 각 상임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지역사회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ovan & Kenis(2008)는 각 조직들 간 협력적 관계에서 목표의 공유 정도가 높다면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 보통 수준에서도 운영의 여부에 따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높은 목표의 공유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6개의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지역단체별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각 상임위원회와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가 공유할 목표는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수행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우 그 업무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예산운영, 도정홍보, 지역경제시책, 교통대책,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투자·통상진흥,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수출촉진 등이라고 하였을 때 이 상임위원회의 목표는 계획된 지방재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문제 해결,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획경제위원회와 협력할 지역사회단체의 목표도 그것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 지출, 예산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문제 해결, 벤처기업·테크노파크 육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협력할 지역사회단체로 선정될 수 있는 단체는 반드시 그것의 목표가 지방의회의 그것과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 4) 네트워크 역량(Need for Network Competence)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통해 얻어진 성과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때 서로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성과물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로 강하게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네트워크 역량이라고 한다. 이민호외(2014)의 사례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연구에서 네트워

크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개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단체 간 네트워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 NAO(각 상임위원회별 네트워크 관리 조직)의 NAO(NAO센터) 구축을 제시한다. 이 조직이 6개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면 전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역량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NAO센터는 6개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각 위원회별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주관하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할 관리 본부가 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전체 운영 모형

위의 <그림 2>에서는 그림의 중심에 “NAO CENTER”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상임 위원회별 NAO를 통합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조직이다. 이 NAO센터를 통해 6개의 NAO가

실제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모든 NAO를 운영하는 아이디어, 예산, 조직관리 등과 관련된 일은 NAO센터에서 전담하게 될 것이다.

## 2.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방안

협력적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성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 하였었다. 여기서는 먼저 앞에서 제시한 신뢰 향상 방안을 이용하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신뢰 향상을 논의하고,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 1) 네트워크 비용과 이익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서로 간 신뢰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경우에 향상된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네트워크 비용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운영비용과 운영시간이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익의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목표의 성취,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한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 향상, 목표의 성취를 통한 지방의회의 존재성 부각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역사회가 지불할 비용은 지방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경우 정보수집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을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항,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시, 의회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항,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시 업무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공동의 목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는 서로가 추구하는 공동 목표가 있을 경우 상호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차원에서 공동 목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같은 시민단체의 목표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운영과 관련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찾고, 이를 공유하면 상호 신뢰가 향상될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나 지역사회단체의 목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지역사회단체의 경우 여러 새로운 단체들이 지방의회와 협력적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을 찾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찾는 업무는 상임위원회별 NAO와 NAO센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다양한 수준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지역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네트워크의 목표를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공유하는 정도가 높으면 네트워크 강도는 강화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별 NAO는 네트워크만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으로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의 네트워크 목표를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3) 정보의 교환 및 갈등 관리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사이의 정보 교환은 서로간의 만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각 NAO는 이러한 정기적인 회의에서 논의한 흥미롭고, 시의 적절한 논의의 주제를 계속하여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NAO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회의에서 서로 가치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면 그 정보는 각자의 조직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그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NAO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활기차게 움직여서 그것의 성과나 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참여자들 사이에 이와 관련된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 NAO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한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 속에서 각 조직들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NAO는 자원이나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과 같은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4)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네트워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참여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은 네트워크 관리의

필수적 업무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참여하는 유인이 무엇이며, 참여조직의 규모 등을 포함하는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조직의 내부적인 특성과 관련된 정보수집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의 다른 조직과의 협력관계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통합과 조정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Proven & Milward, 2001). Proven & Milward(2001)는 네트워크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몇몇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자들에 의해 자원과 정보의 흐름이 조정되고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Jennings & Ewalt(1998)는 조직간 관계의 조정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가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관계에서 조정의 역할은 네트워크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서는 NAO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자신들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참여 조직들의 다른 조직들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계속하여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협력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면 이는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에서는 NAO센터가 조직간 협력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는 주로 지방의회 쪽에서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지방의회 연구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의회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방의회 전체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고, 일부 의정연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규적

인 미팅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약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네트워크는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사항,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시, 의회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 등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 지방의회 사무기구라는 조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운영위원회와 특별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기능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리 조직인 NAO를 구축하고, 이들 NAO를 통합 관리하는 NAO센터의 구축을 논의하였는데 경상북도의회를 실례로 들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임위원회별 NAO를 통합 관리하는 NAO센터를 구축하여 NAO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NAO센터는 전문가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별 NAO네트워크가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NAO는 모두 언론계와의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활동이 수시로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그것의 관리가 네트워크의 계속적 유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관리 조직은 참여하는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 유인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관리는 참여하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참여 단체에도 계속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소통은 그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 방식의 지방자치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자연적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역사회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자치 방식의 지방자치체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소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의도적인 네트워크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에서도 의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하는 것도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위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체자치 방식의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방식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의 네트워크는 정규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의무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보상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개척분야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NAO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와 직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 정규적인 미팅, 참여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방법 등 네트워크 운영 방안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호·최병대·문병기. (2004). 지방의회지원기능의강화방안에대한분석: 의회사무기구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3(1): 203-234.
- 강창현.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언아·강용주·황수정·박치성. (2007).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개발: 15.
-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승완. (2011). 자원으로써 네트워크가 환경 NGO 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9(4): 279-304.
- 김준기·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6.
- 김준기·정복교. (2006). 한국의 사회조직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4): 75-105.
- 김혜정. (2007).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기능. 『한국행정논집』, 19(3): 71-93.
- 박형준·장현주. (2009). 지방정부간 수자원서비스 협력연결망에 관한 연구: 서비스의 거래비용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121-145.
- 배귀희·임승후. (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한탄강댐 사례에서의 네트워크 특성과 주요행위자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4): 107-144.
- 오환인. (2003). 『지방의회 10년 회고와 발전과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의정연구소.
- 윤수찬. (2014). 지방의회 기능이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셜미디어 활용을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기우. (2005).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월간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 이민호·윤광석·조세현·원소연. (2014).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18(1): 121-146.
- 이주현·박치성. (2010).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1-35.
- 이혜원·우수명. (2005).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I: 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 119-146.
- 송건섭. (2013). 지방의회와 지방정치: 영호남지역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3): 765-790.
- 송광태. (2005).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kapa@포럼, 112권: 52-55.



- 전영상·현근.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 분석: 충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1): 83-115.
- 정문기. (2009). 지역경제개발의 협력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43(3): 229-250.
- 정범구. (2003). 조직 내 신뢰와 조직 간 신뢰의 관계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영경제연구』, 25(2): 97-113.
- 정영국. (2000). 지방정치과정의 양상과 주민참여: 유형과 실태. 『동서연구』, 12(1): 79-114.
- 주용학. (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1): 43-69.
- 최병대. (2009). 『경기도의회 정책보좌 기능 제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5-25.
- 최종혁·유영주·김효정. (2010).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형성 탐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시대의 과제. 『사회복지연구』, 41(3): 135-162.
- 최창호. (2002).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최한수. (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홍성만. (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 (NGO) 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 (동강) 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21-40.
- Agranoff, Robert and Michael McGuire. (2003).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huja, G. (2000). "Collaboration networks, structural holes, and Innovation: A Longitudinal Stud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 425-455.
- Austin, J. E. (2000). *The Collaboration Challenge*. San Francisco: Jossey-Bass.
- Brainard, L. A. & McNutt, J. G. (2010). Virtual Government - Citizen Relations Informational, Transactional, or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 Society*, 42(7): 836-858.
- Gulati, R. (1995). "Social Structure and Alliance Formation Patterns: A Longitudin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 619-652.
- Guo, L. (2012). The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Agenda Setting Research: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6(4): 616-631.
- Inkpen, A. C., and E. W. K. Tsang. (2005).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 146-165.
- Jennings Jr. E. T. and Ewalt, J. A. (1998). International Coordination, Administrative

- Consolidation, and Policy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5): 417-428.
- Jones, Candace, William S. Hesterly, and Stephen P. Borgatti. (1997). "A General Theory of Network Governance: Exchange Conditions And Social Mechanis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2(4).
- Goldsmith & Eggers.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Meier, Kenneth J., and Laurence J. O' Toole Jr. (2001). "Managerial Strategy and Behavior in Networks: A Model with Evidence from U.S.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 271-294.
- Powell.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In Staw B. & Cummings L. L.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JAI Press.
- Provan, K.G. & Kenis, P.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 Provan, K. G. & H. B. Milward. (2001). Do networks really work?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 sector organizational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14-23. 2001.
- Podolny, J. M. (1993). "A Status-based Model of Market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829-872.
- Shergold, P. (2008).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 O'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 Sirianni, C. (2009). *Investing in democracy: Engaging citizen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 기 목:**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The Determinan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and Expenditur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Grantor Governments, 1994), 현재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재무행정, 정책의제 등이며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2009)”, “The Life Cycle of Newspaper Coverage of a Public Issu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US Beef Imports in South Korea(2012)”, “공공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량 측정모형의 개발과 적용(2014)” 등이 있다(kpark@daegu.ac.kr).

## 【부 록】

## 서울특별시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1	2848.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856.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 활동	2
2013.02	2870.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개최 2880. 영유아를 위한 나눔 기금 2천만원 전달해 2897.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3
2013.03	2915. 서울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전자신문고 설치 2933.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2938. 시민의 이익과 버스업자의 이익이 상충할때 서울시는 버스업자 대변 2940. 서울시 일자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되어야	4
2013.04	2968.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 ... 2977. 정책개발, 의회가 선제적 대응 2980. 동네문구점 상생을 위한 작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2986. 2012년 구로청소년육구조사결과보고서 발간 3002.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정 구현을 주문 3012.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다 3024.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NPO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	7
2013.05 ~2014. 10	...	
2014.11	4189. 정책연구위원회, 도시안전과 교통정책 관련 정책연구 ... 4190. 옥상녹화 Vs 태양광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4191. '부동산 활성화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열어 4195. 시민과 함께 숲내교 안전점검 4245. "서울역고가 공중공원화 사업 타당한가" 시민토론회 ... 4296. 시민과 함께하는 2015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 개최	6
2014.12	4346. 서울시의회 사랑의 열매 전달식 개최	1

## 부산광역시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2	187. 부산광역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190. [강성태 의원]부산시의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
2013.03	19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
2013.04	206. 2013년(제13회) 여성 의회교실 개최 207. [송순임 의원]문화소통 의원연구단체 토론회 개최	2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5	216.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전략 토론회 개최	1
2013.11	268. 2013년도 대학생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1
2013.12	.....	
2014.11	356.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관련 원탁회의 개최	1
2014.12	376. 민선6기 부산시 조직개편안 시민대토론회 개최 383. '원전도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

### 대구광역시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1	964. 대구시의회,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1
2013.02	966.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1
2013.03	982. 대구경북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2013.04	991. 달성산단 이동민원 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개최 1009. '대구: 중소기업이다'세미나 개최	2
2013.05		
2013.06	1033. '창조경제와 스마트 도시 대구' 세미나 개최 1034.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1035.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신공항 조기건설 간담회 개최 1036. 협동조합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4
2013.07	1049.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실 있는 기업의 유치와 성공을 위한 제안 1050. "6.25 정전 60주년 기념" 보훈학술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	2
2013.08 ~2014.11	.....	
2014.12	1284. 이동희 의장,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와 간담회 가져	1

### 경상북도 경산시<기초자치단체>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2	4. 경산시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문품 전달 5. 경산시의회 박형근산업건설위원장 주민 감사 ...	2
2013.03	6. "사진으로보는 경산시의회 20년사" 발간	1
2013.04		
2013.05	8. 경산시의회 백천동 무료급식소 봉사 체험 활동	1
2013.09	15. 경산시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어린이집 위문품 전달...	1
2014.08		
2014.09	37. 경산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루도비꼬집 위문품 전달	1

## 경상북도 구미시&lt;기초자치단체&gt;

년, 월	지역사회협력내역	건수
2013.03	구미시의회,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1
2014.07		
2014.08	124.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할롱(HALONG)” 복상에 따른 대책 보고회 개최	1